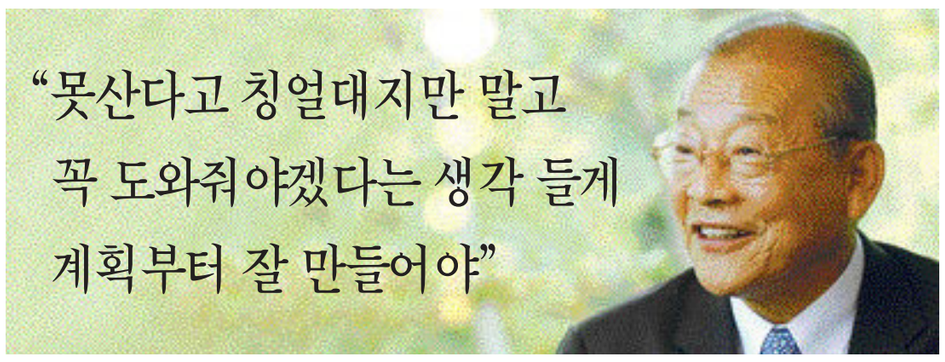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48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23일 (음력 5월 28일) 금요일

The Kwangju Ilbo

물러나는 3선 김흥식 장성군수의 후배들을 위한 고언



"뒷말 날까 저녁은 집에서 먹어 지방자치는 정치 아닌 생활이다"

"군수가 흐트러지면 지역 전체가 흔들립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어떤 유혹, 토호세력의 위세에도 아랑곳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수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민과 공무원들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비밀이란 없습니다."

민선 1기부터 내리 3선을 한 김흥식(72) 장성군수가 후배 단체장에게 전하는 첫번째 고언이다. 김 군수는 11년 동안의 3선 임기를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저녁은 반드시 집에 가서 혼자 먹었다"면서 단체장들의 '각별한 처신'을 주문했다.

'한국 지방자치의 선진 모델', '행정고시 합격자들의 필수 수습코스'. 김 군수가 이끌었던 장성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듯 성공한 단체장으로 평가받는 그에게도 아쉬운 점은 많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집단 이기주의가 민선 자치의 발목을 잡더라"고 토로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허가를 요청하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미루는 바람에 포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과정도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 나름의 예산확보 노하우도 밝혔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항상 잘 살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꺼리'를 잘 만들라는 것.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 예결위원들이 사업내용을 보고 이 일은 꼭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하죠. 우리 동네가 못산다고 칭얼대기만 하면 예산 확보는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지역의 능력도 없는데 지원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뜻 밀어주겠습니까?"

김 군수 나름의 인맥관리는 또 다른 노하우. 인맥의 창구는 전국적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성아카데미'. 그는 "장성아카데미에 농림부나 행자부 장관이 강사로 다녀가 얼굴을 익혔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모른 체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전략이 총 514억원에 이르는 홍길동테마파크 사업을 가능케했다. 또 지난 11년간 106억원의 각종 상사업비도 타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김 군수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자치입니다. 지역주민과 단체장, 지방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방자치에 중앙정치의 입김이 서린다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김 군수는 일흔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청년 못지 않은 정열을 안고 있다.

그는 "퇴임 후에도 당분간 한가롭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며 "벌써부터 대학과 기업체, 정부기관의 강연초청이 밀려 있다"고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주민과 공무원들의 협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 각계가 더욱 노력해 꼭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치경기자 unipark@
/장성=고재빈기자 jbgo@
/사진=최현배기자 choi@

스위스를 꺾고 G조 1위로 16강에 오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21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 보조구장서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레버쿠젠=연합뉴스

무조건 이기고 16강 간다

내일 새벽4시 스위스와 운명의 결전

▶관련기사 4·5·7·20·22·23면

'신화(神話)는 다시 시작된다'

아드보카트호가 24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엑스포 시티' 하노버에서 '알프스의 전사들' 스위스와 운명의 결전을 벌인다.

2006 독일월드컵축구 G조 조별리그 최종전으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승부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결전 이전에 괜한 평가를 사절했다. 스위스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국이 스위스와 비기고 1승2무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을 한국에서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런 질문은 대회가 끝난 뒤에 하라. 우리는 반드시 스위스를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략은 간단하다. 이기는 것 뿐이다. 같은 시간 쾰른에서 열리는 프랑스-토고전 결과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태극전사들은 22일 오후 결전지 하노버에 도착, 현지 숙소인 엑스포 플라자에 위치한 래디슨 SAS 하노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미 스위스에 대비한 전술 훈련은 마쳤다. 지난 21일 바이 아레나에서 진행된 비공개 훈련을 통해 6 대 6 미니게임으로 '전형 시뮬레이션'을 끝냈다. '작은 장군'의 지휘를 받는 전사들은 '쓰러질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무장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국 대표팀이 반드시 스위스에 이겨야만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은 아니다.

프랑스-토고전 결과에 따라 비기더라도 행운의 16강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 프랑스가 한 골차로 승리할 경우에는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한결같이 "스위스전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한다. 다른 경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스위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지난 14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조별리그 첫 경기를 비롯해 프랑스와 세차례 연속 비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금호 선정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차순위협상대상자는 프라임그룹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대우건설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캠코 김대진 이사는 "공자위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차례 걸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라임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가격·비가격·감점부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5개 컨소시엄 가운데 금호그룹이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절차는 이달말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의 확인실사를 거쳐 오는 9월 매매대금 수령과 주식교부를 마치면 매각이 완료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산문·시·논술 부문 입상자 ▶14·15면

오늘밤의 월드컵

<23일>

우크라이나	H	튀니지	베를린/23:00/KBS1·MBC·KBC	
사우디	H	스페인	카이저슬라우테른/23:00/KBS2	

<24일>

한국	G	스위스	하노버/04:00/KBS2·MBC·KBC	
토고	G	프랑스	쾰른/04:00/KBS1·MBC·KBC	

스코어 보드

포르투갈	(3승)	2	D	1	(1승1무1패)	멕시코
이란	(1무2패)	1	D	1	(2무1패)	앙골라
네덜란드	(2승1무)	0	C	0	(2승1무)	아르헨티나
코트디부아르	(1승2패)	3	C	2	(3패)	세르비아